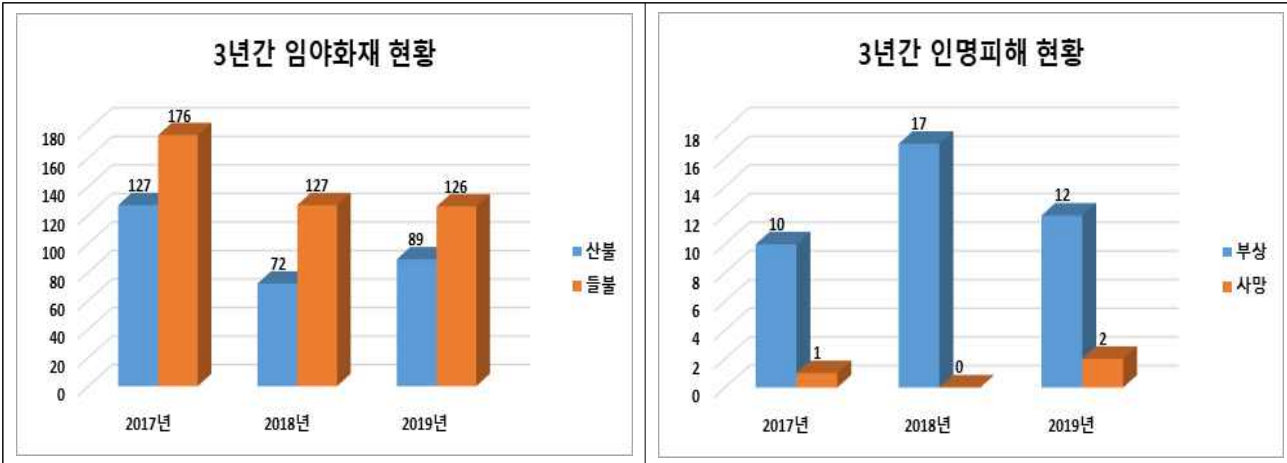


3월 주요 재난 안전사고 예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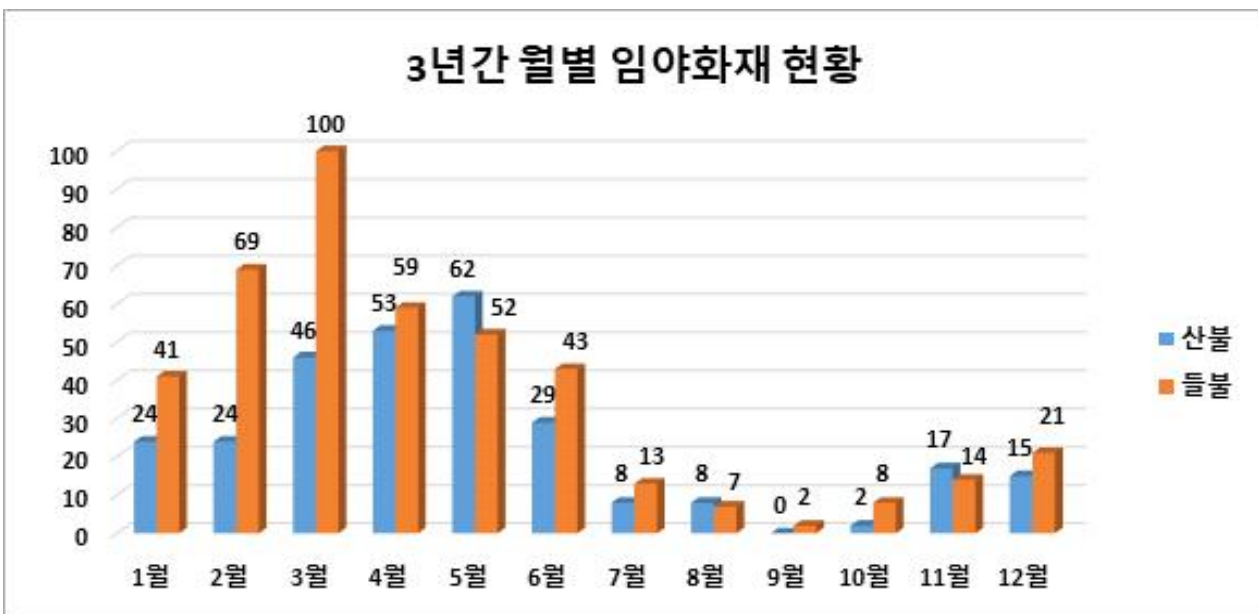
= 봄철 영농기 부주의로 인한 임야화재 주의보 =

□ 임야화재 발생 현황('17년 ~ '19년)



- 3년간 임야화재는 총 717건이 발생하여 209,598,545천 원(3,503.5ha)의 재산피해와 42명(사망 3, 부상 39)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- 임야화재 717건 중 산불이 40%(288건), 들불이 60%(429건)로 나타났으며, '18년도 발생건수는 산불피해가 극심했던 '17년 대비 28%(49건) 감소하였으며, '19년은 강릉, 인제, 속초, 동해 산불로 인해 사망자 발생, 피해액 및 피해면적도 크게 증가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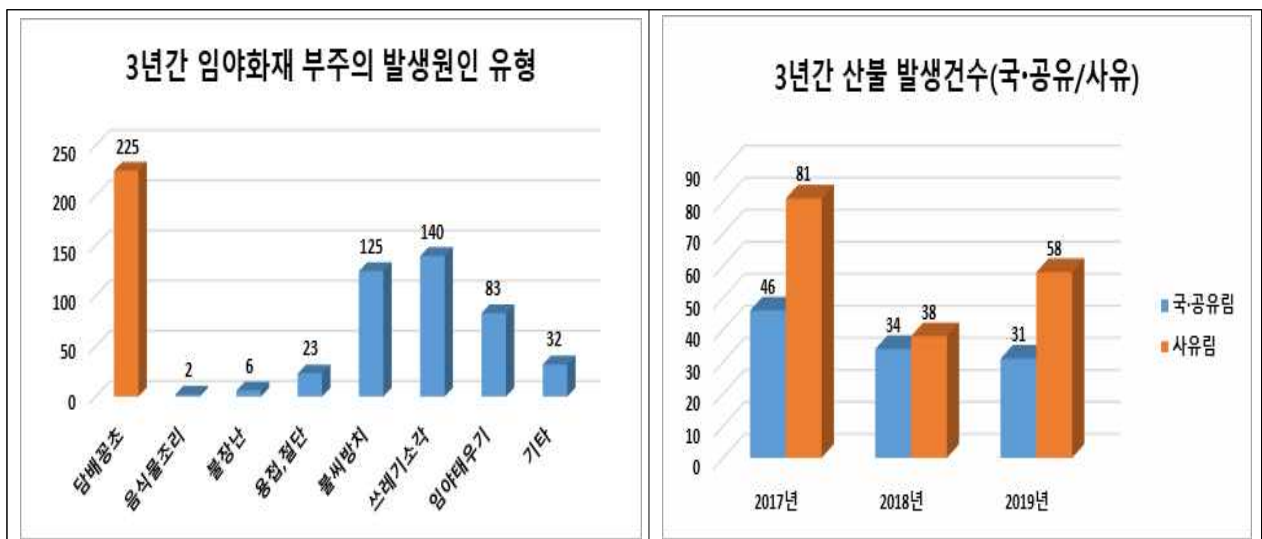
□ 임야화재 월별 현황



- 최근 3년간 임야화재 월별현황을 분석해 보면 전체 717건 중 3월 20%(146건), 5월 16%(114건), 4월 16%(112건)로 3월에서 5월 봄철에 가장 집중되었고, 인명피해도 3년간 총 사상자 42명중 19%(8명)가 3월에 발생하였다.

연도별	건수	피해액 (천원)	피해면적 (㎡)	인명피해	
				사망	부상
계	146	5,103,930	4,462,401	-	8
2019년 3월	36	27,673	25,230	-	4
2018년 3월	33	4,826,116	3,598,640	-	1
2017년 3월	77	250,141	838,531	-	3

- 3년간 3월에 발생한 임야화재 146건 중 산불은 32%(46건)이고, 들불은 68%(100건)로 나타났다. 들불(들판, 과수원 등)은 3년간 총 429건 중 3월에 23%(100건) 발생하였다.('17년 48건, '18년 27건, '19년 25건)
- 산불화재는 3년간 총 288건으로 사유림이 전체의 61%(177건)를 차지했다. 3년간 3월중에 발생한 산불 46건 중 국·공유림 24%(11건), 사유림 76%(35건)으로 나타났다. '19년 산불화재 11건 중 사유림이 82%(9건)을 차지했다.
- 임야화재 발생원인은 담배꽂초, 쓰레기 소각, 불씨방치, 임야 태우기 등 부주의가 전체의 89%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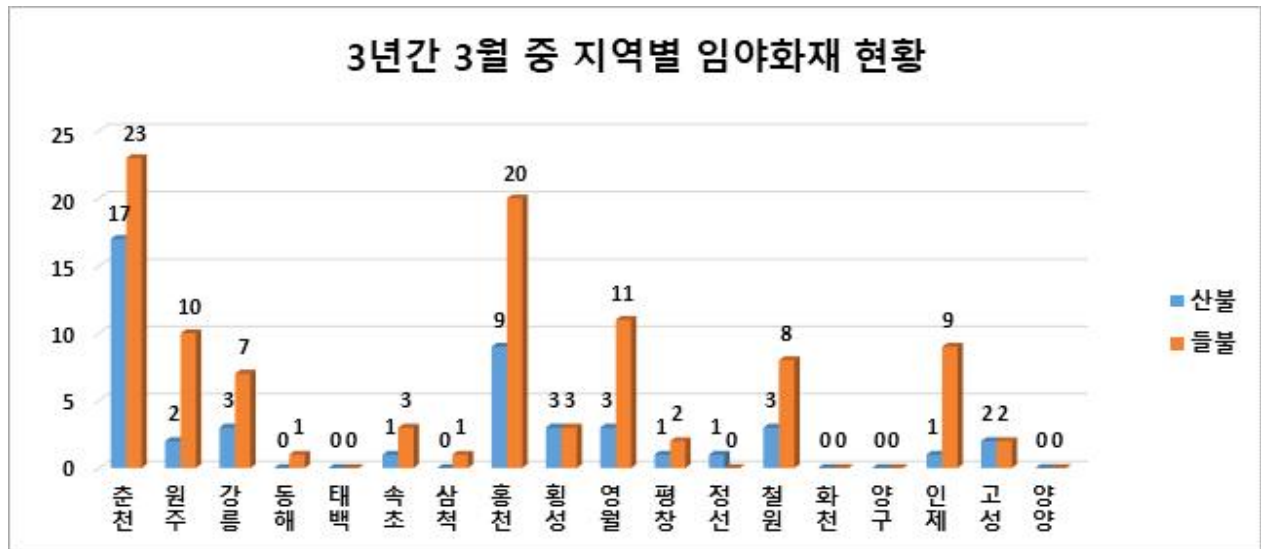
[3년간 임야화재 부주의의 유형]

[3년간 산불 장소별 현황]

□ 지역별 임야화재 발생

연도별	건수	지 역 별																	
		춘천	원주	강릉	동해	태백	속초	삼척	홍천	횡성	영월	평창	정선	철원	화천	양구	인제	고성	양양
계	146	40	12	10	1	-	4	1	29	6	14	3	1	11	-	-	10	4	-
2019년 3월	36	10	2	4	-	-	3	-	10	1	3	-	-	-	-	-	3	-	-
2018년 3월	33	7	5	3	-	-	1	-	4	2	3	1	1	4	-	-	1	1	-
2017년 3월	77	23	5	3	1	-	-	1	15	3	8	2	-	7	-	-	6	3	-

○ 3월중에 발생한 146건의 임야화재 중 춘천이 27%(40건)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다음으로 홍천 20%(29건), 영월 14건, 원주 12건, 철원 11건, 인제·강릉 10건, 횡성 6건, 속초·고성 4건 등 순이었다.



- 3월중 임야화재의 종류별·지역별 발생률을 분석해 보면,
 - 산불은 춘천 37%(17건), 홍천 20%(9건), 횡성·영월·철원 7%(3건), 원주·고성 4%(2건) 순이었고, 동해·태백·삼척·화천·양구·양양은 3년간 3월중 산불이 발생하지 않았다.
 - 들불은 춘천 23%(23건)로 가장 많았고, 홍천 20%(20건), 영월 11%(11건), 원주 10%(10건), 인제 9%(9건), 강릉 7%(7건) 등 순이었고, 태백·정선·화천·양구·양양은 3년간 3월중 들불이 발생하지 않았다.
- 농사철이 시작되는 3월부터 4월까지 들불화재가 발생될 것이 예상되는 시기이므로 논·밭두렁 소각행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.

□ 봄철 산불예방(안내문)

- 산림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입니다.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할 때에는 산불을 조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산불 위험예보에 따라 전국의 주요 산의 입산을 통제하거나, 등산로를 폐쇄하고 있습니다.
- 등산이나 입산하실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나 관할 시·군·국유림관리소 등 산림부서에 문의하셔서 입산 또는 등산이 가능한 곳인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급전한 지역의 논·밭두렁이나 농산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건수는 연평균 약 20%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마을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.
- 산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·군·국유림관리소 등 산림관서나 119,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산행 중 산불발견 시 대처요령

- 산불 발견 시 119, 산림관서, 경찰서로 신고한다.
- 초기의 작은 산불을 진화하고자 할 경우 외투를 사용하여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할 수 있다.
- 산불은 바람이 불어가는 쪽으로 확산되므로 바람방향을 감안하여 산불의 진행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한다.
- 불길에 휩싸일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화세가 약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한다.
- 대피 장소는 저지대, 연료가 없는 지역, 도로, 바위 뒤 등으로 정한다.
- 산불보다 높은 위치를 피하고 복사열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.
- 대피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에는 낙엽, 나뭇가지 등 연료가 적은 곳을 골라 연소물질을 긁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기다린다.

□ 산불예방 참여요령

-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,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는다.
- 입산 시에는 성냥,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는다.
-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한다.
- 성묘, 무속행위로 불가피하게 불씨를 다루어야 할 경우 반드시 간이 소화장비를 갖추도록 한다.
- 산림과 연결된 지역에서 소각해야 할 경우 해당관서에 사전 허가를 받고, 불씨가 산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고 소각한다.
- 산림 또는 산림과 연결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, 산불조심을 당부한다.
- 산불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한다.